

13. 율법주의의 특징 2

마태복음 23장 25절~28절 "2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반드시 이해되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헌금, 봉사,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은 마치 결혼반지처럼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을지 몰라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본 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인데 신앙의 의식 그 자체를 본질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의식 잘하는 그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십일조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식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인데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나머지 특징들을 2단원 4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징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잠을 자는 것을 모릅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야 잠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줄을 모릅니다. 깨어난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곧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은 영적인 우월감이고 또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은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나머지 특징인 능력이 없는 종교, 영적인 소경, 믿음이 없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5절 "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배반하여 팔며 조금 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거기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차피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특별히 **이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서려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지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어느 때보다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율법주의가 팽배할 질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은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야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그저 형식과 절차로 가득한 종교입니다.

왜 이게 왜 능력이 없는 종교가 율법주의의 특징인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율법주의는 신앙을 외부적인 복종에 강조점을 둡니다. 규례와 규칙에 강조점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의 몇 가지 항목들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렇잖아요. 기독교인의 의무가 뭐냐? 성수주일, 십일조, 전도, 봉사, 뭐 이러한 것 몇 가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면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진짜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아니고 613가지로 그리고 그 613가지를 그대로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술 안먹고 담배 안피우니까 거룩하다고요 그게 거룩하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룩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613가지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왜 그러면 능력이 없는 종교냐면 우리의 능력은 이러한 외부적인 복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죠. 이 경건의 능력은 외부적인 복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도 예배 안빠지고 한 달에 반드시 일주일은 금식하고 일년에 두 차례는 성경을 통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면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만큼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 제 책이 잘됐어요. 기도생활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됨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해요. 잘 이해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주일 날 드리는 것, 기도생활, 금식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릇에 불과하다고요.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룩함은 뭐냐? 거룩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외부적인 복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났더니 방송국에 가서 만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 하면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뭐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런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용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가 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대요.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대 예배시간에 청바지 입고 강단에 서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단에서 청바지를 입어야 옳으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복 입으면 잘못됐느냐 그것은 더욱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율법주의란 말이나?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으로 이해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경건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하게 보이나 너희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우리들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그동안 좋은 옷을 잘 다려서 입고 갑니다. 다 좋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잘 다려 입고 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미움, 시기, 질투, 후욕, 분노, 세상 사랑, 세상적인 가치관, 탐욕, 탐심, 음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 앞에 웃으며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미워하고 당파짓고 후욕하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갖췄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건함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경건함은 거룩함은 어디에 나오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현재적인 실재적인 목표요 목적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전존재로서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때만 거룩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거룩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죄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신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존재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율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술 안먹고 담배 안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 타락과 음욕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이러한 세상적인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치 곡예하는 것처럼 이 선만 안 넘으면 우리는 죄짓는 것은 아냐, 여기 까진 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곡예 하듯이 어쩌다 넘어졌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삶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며 통치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이죠.

그러나 지속적인 성화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이 지속적인 성화의 거룩함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며,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주님과 의, 인격체이신 주님과 교제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전존재로 그분을 알고, 사랑해 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헌신, 규례와 규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전혀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 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신앙을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겉모양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추니다. 그래서 죄가 속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죄가 들어납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가 숨습니다. 가립니다. 부끄러워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꾸짖으셨고, 심하게 분노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다섯 번째 특징,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 율법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어지는 겁니다.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복해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24,26 ‘24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6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소경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고난 다음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남아있다고요(‘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경우에 표적이었거든요. Sign이었거든요. 증표였거든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 먼 자를 고치심으로써 요한복음은 그것을 선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 있을 동안에, 지난주에 부산 집회에 우리 이승주 목사님 가셨거든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눈 먼 자가 뜨게 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많이 하실 건가 봐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그 얘기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했는데 사역시간에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여 가지고요,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이 분이 눈을 팍 떠버린 거예요. 완전히 먼눈은 아니었는데.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눈이 팍 떠져가지고 이제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왜 못 보냐 하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더라요. 못 보다 떠져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신나는 일 있었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갔다 온 얘기라도 할 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 먼 자를 뜨게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임을 징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준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기서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했더라면 죄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장님은 자기가 장님인 것을 알아요. 불편해 해요. 눈을 뜨기를 원해요.

근데 영적인 장님은 자기가 장님인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장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장님이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눈이 어두워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못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못 보는 걸 몰라요.

라오디아 교회도 보십시오. 예수님 문 밖에 계시잖아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근데 눈멀었는데,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라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눈이 가리어진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못 보니까!

이처럼 율법주의에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영적인 소경인데, 영적인 소경임에도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럼 왜 이게 영적인 소경인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되요.

왜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이? 무조건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랬는가? “당신 소경이야!”, “당신 못 봐!”, “당신은 무지해!” 그건 정죄하는 것 밖에 안 되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

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는 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영적인 소경의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이론과 실재의 문제를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오늘 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박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단 얘기에요? 아니죠. 그건 웃을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무엇을 첫째 날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써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거요? 그들은 박사들이었죠. 박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른다고 하신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이론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론이란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실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특징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45,47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모세를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거든요. 율법, 선지서, 시가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켰고요. 선지서는 그 외 나머지를 가리켰고, 시가서는 잠언과 시편 같은 것을 시가서로, 오늘날도 성경을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율법하면 모세가 이 율법을 대표하는데요.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구약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믿었다는 말은 작게는 모세오경을 안 믿었다는 얘기고, 크게는 성경 전체를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이니까. 오늘날에는 신·구약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에 보면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진짜 보수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창세기 1장1절에서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씀을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보수적으로 그대로 다 믿었어요. 하나

님의 기적을 믿었고요. 선지자들을 믿었고요. 말씀을 다 믿었어요.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바
 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이 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머리로 그대로 믿으
 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 이러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
 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게.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
 니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
 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아
 멘!” 해요.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심판 받을 것
 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믿
 을 뿐이죠. 그 실재는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나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설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진짜로 심판을 받을 것을 진짜로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살 텐데요. 이렇게 안 살 텐데
 요.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의 긍정밖에 안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은 우리보다 100배 더 많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틀림없이 그대로
 다 믿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실재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그
 믿음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우리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안 믿는 겁니다. 그건. 그래
 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신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이처럼 이론과 실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들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에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존재로 신뢰하는 거예
 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영적
 인 소경이라고 그랬지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것을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실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
 경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실재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
 주의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를 통해서, 사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도금만 하더라도. 우리교회 지금 사이즈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거요.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필요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단과 방법이 있는 한 믿는

다. 그러죠.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 뿐이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처럼 율법주의는 영적으로 소경이며 믿음이 없는 종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세지말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러한 기룡(?) 할 때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말세지말에는 얼마나 신앙이 타락하여 율법주의가 가득할 것 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편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말세지말에 교회는 극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존재로 주님을 따라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될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반면에 종교적인 모양에 안주한 나머지 전혀 하나님의 실재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신앙이 하나의 자기의 삶을 위한 방편으로 전략해버린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체 어두운 체로 신앙의 모양으로 만족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도 더 눈이 어두운 그러한 것으로 밖에 전략하는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말세지말이 될 것이고 지금이 말세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셔서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 분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며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한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곁에 살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사역만 하더라도요.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1부예배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냐 하면요. 우리를 인솔하는 분이 여자 강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전라도 광양이라는 곳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기도원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 관심을 주셨어요. 그분은 여자분이고 독신이에요. 나이는 이제 40이 다되어가는데 혼자사세요 주님을 남편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아프리카를 말씀하시더라고.-그런데 아프리카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아프리카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말라리아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프리카는 절대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아프리카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현금을 하고 왔는데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게 될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돌아왔는데요 어떤 분이 3년치 번 돈을 가져왔더라고. 현금으로. 그게 너무 너무 귀한거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도저히 교회에서 못 쓰겠더라고. 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걸 들고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그래 기도했더니 차비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돈을 싸가지고 갔네요. 가서 인도대로 가는거예요. 누구를 줄까요 하나님! 그리고 가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간 그

선교사님 그분들을 우연히(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순간, 이 분은 그 얘길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분은 들었고 어찌됐던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천만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하겠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보낸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흑백 뭐 그런곳인데 백인 중의 한 분인데요 아까 말한 텐트 사역에 동참하는 분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보게되었어요.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센타가 들어서서 백인들 뿐 아니라 흑인들도 와서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장기금식도 할 수 있고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백인 여자분이요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수술할 때가 지났나봐요. 자기 수술할 돈 남편에게 거기 투자하라고 그리고 금년 1월에 세상 떠났어요. 자기는 자기 목숨을 드린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센타가 되어서는 그 선교센타 지을 건물로 현금이 간거예요. 거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광양에서 그분이 목회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데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인터넷 들어와서 보기 시작한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같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이길수 목사님 집회를 와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바빠서 못가면서 몇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김재열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계속 목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중단하고 동생도 강도사인데 남자동생 지금 강도사님인데 그분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필리핀으로 날랐어요. 쉬었다 온다고... 김만재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래서 김만재 선교사님에게 가 있는데, 어제인가 왔는데 제가 오늘 필리핀 김만재 선교사님 계신데 갔잖아요. 뭐하러. 전 반기 회의하러. 거기 4월 집회를 앞두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갈거래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아는 체를 하고 어찌고저찌고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선교 그러더라구요. 저는 원래 여자가 그렇게 접근하고 하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프리카 갈 것이라는 말을 미리 안 하셨더라면 제가 그 여자 싫어했을 겁니다. 이 여자 또 어디서 왔다고 속으로 그랬을텐데-제 편견입니다. 여자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3월부터는 훈련원이 시작되고 바쁘니까 또 스케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가게 된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 놀랍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심이 너무 너무 선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아래서 우리가 다 계획한게 아니죠.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람 보내시고 돈 보내고 차비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돈 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위에서 지시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할 부분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 뿐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이 이번에 갈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국위를 선양하게 하시는 그런 비슷한 감동을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 참고로 제 아내는 애국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16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게 그분에게는 대단히 기쁘다고 할 만큼. 저는 그런거 안 따지거든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국위를 선양할 그런 비슷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에 가는 곳마다 한국의 태극기 날리고 온 거 아세요? 흑인사회에서 백인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완전히 인식을 달리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보고 환대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는데 이번에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우리가 2박3일 일정에 마지막 케이프타운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면 좋으니까 멀리. 그래서 딱 하루 받은 관광을 했어요. 제가 희망봉을 갔거든요. 왜 희망봉 가는게 저에게 상당히 중요했냐 하면, 지금부터 오래 전에 꿈을 꿔어요 밤에. 그런데 희망

봉이래요. 그런데 위 산이 평평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깎아내린 것처럼 완전히 절벽이에요. 거기가 희망봉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희망봉이 최남단이니까 그 다음은 바다가 깔려야 할텐데 바다가 아니고 육지가 한참 있더라구요 이렇게. 아래로 펼쳐지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흑인 백인 황인종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인종들이 거기에 모여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뒤가 바다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뭐 강단이 꺼지구요 제가 옷을 다 입지 않았구요 그래요. 준비가 안된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서울에서 희망봉까지. 희망봉이라는 말은 뭐하니까 케이프타운 그 가까운데가 케이프타운이더라구요. 그래서 FSTCT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거거든요. From Seoul To CapeTown. 우리 선교센타 지으면 그 건물을 그렇게 이름 붙이려고합니다. FSTCT.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놀란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희망봉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희망봉은 그렇게 안생겼어요. 제가 꿈에 본 그 산이 정확하게 케이프타운에 있는데요 그게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산이에요. 테이블 마운틴 완전히 평평하구요 완전히 깎아내렸고요 그 앞이 케이프타운이에요. 그리고 바로 바다예요. 그런데 그 케이프타운에는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뿐만 아니라 황인뿐만 아니라 온갖 인종들이 거기 몰려 살아요. 그 산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산이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리고 그 산이 제가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징적인 산이래요. 그러다보니까 온갖 종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 스테이블 마운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게 선명하신 것 같더라구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요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카바할 수 있겠더라구요. 거기는 카바할 수 있겠더라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획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되- 전존재로- 오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갈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이번에 가서 그 찬양 많이 했거든요. ~